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40 웰컴 투 시월드(재) 5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광장	00 코토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갈데까지 가보자(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코토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10 팩트 10	00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조류인플루엔자 50 TV동화 발간자전개(재) 55 튜튼 생활채널(재)	50 지구촌 뉴스		30 소치 2014특집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우리말 거꾸말(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재) 45 수목드라마 <감격시대>(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우지개>(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모큐드라마 <싸인>(재)	00 KBS 뉴스12	55 수목드라마 <천상 여사>(재)	00 MBC 정오뉴스 20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재)	00 소치 2014특집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40 뉴스 특보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35 미리보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재)	35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30 한국의 맛(재)
2 5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승사(재)		00 소치 2014특집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00 뉴스토크		00 후투스 읽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임(재) 55 TV 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25 보글북 원정대 40 헬로키즈 공룡이 살아있다!	10 SBS 아수 인 사이드
4 00 박종진의 뉴스쇼 캐드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튜튼 생활채널	25 코파반장의 동화수시대 55 엄마를 부탁해 1부(재)	30 신동방송 호기심 탐험대 스페셜	00 최강 탈플레이트 30 푸리가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레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소치 2014특집 SBS 뉴스퍼레이드 0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정보통	20 도전! 발명왕	05 하늘에서 본 알프스 스페셜
7 20 스타 패밀리쇼(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의 밥상	50 일일연속극 <천상여사>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시시타치 따따따 20 일일연속극 <즐거움 말하나>
8 30 부부극장 콩깍지(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의 노래를 타고>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엄마를 부탁해 2부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소치 2014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노라마 50 생명 최전선	00 수목드라마 <감격시대>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	00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타임	10 해피 투게더	15 글로벌 홈스테이 집으로	15 자기가
12 0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①:30 관촬카메라 24시간(재)	30 인문강단(락) <①:1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울긋불긋>	3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30 MBC 뉴스24 ①:00 MBC 다큐프라임 ①:5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35 소치 2014특집 별을보다 ①:05 나이트라인 ①:35 소치 2014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사)(재)	10:20 명의의 건강비결 <이토포 피부영양을 정복하자>	14:30 몬스터 수확나라	18:3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7:00 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피터팬	19:30 TV로 보는 일차 동화
07:15 마야의 모험	11:20 세계테마기행 <카자흐스탄>	15:30 비두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2:00 KBS 정오 뉴스	15:45 똑똑박사 매디	20:20 직업의 세계 일인자
07:45 로보카 폴리	12:10 연속기획 <폭력없는 학교>	16:00 덩동등 유치원(재)	20:50 세계테마기행 <남아프리카>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코코몽2	21:30 한국기행 <겨울 이야기>
08:20 풍선 꼬끼리 발루뽀	13: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16:45 모야모야(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사)
08:35 방구대장 뽀롱이	13: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17:00 방구대장 뽀롱이(재)	22:45 극한직업
08:50 모야모야	13:50 겨울방학생활 6학년	17:15 꼬마버스 타요	23:15 EBS 역사특강
09:05 코코몽2	14:10 천하무적 한자 900	17:30 풍선 꼬끼리 발루뽀	24:05 지식채널e(재)
09:20 생활의 비법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7:45 로보카 폴리	24:10 EBS 스포츠 중광
10:00 한국기행 <통영>(재)		18:00 두디다콩	
		18:15 곤	

EBS플러스1

00:00 포스압축 <독서와 문법>	12:10 수능질집이 <영어특해 구문편>(재)
00:50 <회법과 직문>	13:05 <영어특해 유형편>(재)
01:40 <문학 I>	13:55 3분 VOCA <문학 II>
02:30 <수학 I A형>	14:50 <문학 I>
03:20 <수학 I B형>	15:40 <수학 I A형>
04:10 <미적분과 통계 기본>	16:30 <수학 I B형>
05:00 <영어 구문분야>	17:20 <미적분과 통계기본>
05:50 <영어 특해의 유형>	18:10 <영어 구문분야>
06:40 <고교 vocabulary>	19:00 <영어 특해 유형>
08:20 <기하와 벡터>	20:00 <고교 vocabulary>
09:10 <적분과 통계>	20:50 지식채널 e <기하와 벡터>
10:00 포스 압축(재)	21:00 포스 압축(삼) <적분과 통계>
10:50 <기하와 벡터>	22:00 <기하와 벡터>
11:40 박봉의 이슈로 만드는 경제	23:00 수능질집이 <영어특해 유형편>(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15:40 초등 3년 EBS 겨울방학생활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0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08:30 실험관찰 비법노트(재)	16:20 초등 개념잡기 <과학>
09:00 출가문 수확 EBS MATH	16:50 글로벌 포워드 나눔(재)
09:10 TV 중학 <국어①>	17:20 초등 개념잡기 <과학>(재)
09:50 <영어①>	18:00 TV 중학 <역사(해)>
10:30 <도덕>	18:40 <사회③>
11:10 <국어②>	19:20 TV 중학(재) <국어①>
11:50 <영어②>	20:00 <영어①>
12:30 중학 1학년 학습비법 특강 <사회>	20:40 <도덕>
13:10 중학 2학년 학습비법 특강 <사회>	21:20 TV 중학(삼) <국어②>
13:50 TV 중학(재) <영어>	22:00 TV 중학(재) <역사(해)>
14:30 <국어③>	22:40 <사회③>
15:10 스포츠랜드	23:20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 “이번 프로젝트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

## 크레용팝과 ‘크레훈팝’ 결성 소망관 응원 나선 ‘기부 천사’ 김장훈

“소방관 위험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5만원입니다. 생명수당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없습니까. 이것만 들어도 ‘이게 뭐지’ 싶지 않습니까.”(김장훈·사진 맨 오른쪽) 가수 김장훈이 그룹 크레용팝과 함께 ‘크레훈팝’을 결성하고 소방관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동안 ‘기부 천사’, ‘독도 지킴이’로 불리며 수많은 공익 활동을 펼친 그가 이번에는 소방관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 활동에 돌입했다.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방관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김장훈은 “내가 살아오며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번 소방관을 위한 작업이 가장 보람되면서 눈물 나고 행복한 프로젝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방관 프로젝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김장훈이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 걸그룹 크레용팝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소방관 응원과 음원 및 뮤직비디오 발표, 전국 소방관과 가족을 위한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공연은 오는 1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실내체육관에서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다.

소방관 정복을 입고 참석한 김장훈은 “2002년 공연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있다가 우연히 만난 소방관과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 물음이 ‘누가 그런 대접을 받고 소방관을 잡니까’였다”며 “이후 길에서 소방관을 보면 항상 눈에 들어왔다”고 프로젝트에 착수한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김장훈이 생뚱맞게 갑자기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12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니 오히려 실례에 옮긴 시점이 너무 늦은 것이다.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오 김장훈과 크레용팝의 이름을 합친 ‘크레훈팝’이란 팀명으로 소방관 응원 가인 ‘히어로(Hero)’가 발표했다. 간담회장에서는 간단하게 팀의 ‘히어로’ 공연 무대도 펼쳐졌다.

“히어로”는 김장훈 특유의 거침없이 내지는 시원한 창법과 크레용팝의 개성적인 안무와 복장이 돋보이는 곡이다. “빠빠빠”를 작곡한 김유민이 만들었다. 수익은 전액 소방관을 위해 기부한다.

김장훈은 “김유민 씨에게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을 노래를 만들어달라 요청했다. 노

래의 장르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 헤비메탈이다. 청년처럼 오랜만에 절대 고음을 질러달라”고 소개했다.

이어 “헬멧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콜라를 너무 늦은 것이다.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오 김장훈과 크레용팝의 이름을 합친 ‘크레훈팝’이란 팀명으로 소방관 응원 가인 ‘히어로(Hero)’가 발표했다. 간담회장에서는 간단하게 팀의 ‘히어로’ 공연 무대도 펼쳐졌다.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 개봉관 축소 외압 논란

백혈병 사망 실화 소재... 예매 점유율은 3위

대기업 멀티플렉스 배정 줄여...배급사 반발

대기업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사진)이 비교적 높은 예매 점유율에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개봉관을 잡지 못해 배급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배급사 OAL에 따르면 오는 6일 개봉하는 ‘또 하나의 약속’은 전국 99곳 롯데시네마 가운데 서울·인천·일산·부산·대구·포항·청주 등 7곳에서만 개봉한다. 영화의 배정이 되는 강원도와 해당 기업체의 사업장이 있는 수원·화성= 물론 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도 상영되지 않는다. 전국 60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메가박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일부터 20여 곳에서 예매를 진행했다가 4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서울·부산·제주 등 7곳에서만

예매를 받고 있다. 메가박스 측은 배급과 관련해 OAL과 협의 중이다.

대기업 중에는 CJ 계열의 CGV(108곳)만 40~50개 사이트에서 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는 개봉을 이틀 앞두고 ‘겨울왕국’(36.5%), ‘수상한 그녀’(24.2%)에 이어 예매 점유율 3위(6.1%)를 달리고 있다.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가운데는 1위의 성적이다. 영화의 평점도 높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10점 만점 중 9.79점, 다음에선 9.9점을 기록 중이다.

높은 평가에도 상영권이 줄어들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상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옛것까지 2월6일 신촌 메가박스에서 분명히 예매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예매하러 보니가 상영이 취소됐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개봉관 수가 너무 적다” “충남은 한 관도 없다” 등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OAL 관계자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이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극장들도 전국적으로 20개의 극장을 배정할 것에 비해 롯데 등의 극장 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작품을 고려해봤을 때 전국 7개 관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외압 등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영화는 시민 모금 운동인 제작주채와 개인 투자로 순제작비(10억원)를 크게 모은 15억 원을 모았다. 시민 모금 등으로 제작비 전액을 모은 건 한국 상업영화 가운데 ‘또 하나의 약속’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국가 공인 1호 박제사 유영남씨



직업의 세계-일인자(EBS·오후 8시20분)=자연사·사고사한 동물을 생존 당시처럼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이가 있다. 탁월한 박제 실력을 갖춘 국가 공인 1호 박제사 유영남. 31년 동안 그가 제작한 박제는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한국뽕부기를 비롯한 각종 희귀동물과 세계적 보호종 큰 바다사자,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동물 등 100여 점에 이른다. 또한 그것들은 귀중한 생물자원으로써 전시용·교육용·연구용으로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 죽은 동물을 그대로 복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불어넣는 박제사 유영남. 오늘도 그는 죽은 동물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있다. 유영남의 박제 특징은 동물의 정적인 자세 대신 생동감 넘치는 자세를 연출해 관람객이 동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양식 어려워 김보다 비싸진 갈매



한국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완도 장좌리 마을 어머니들은 바닷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나면 허리에 양동이 하나씩을 맨 채로 바다에 나간다. 어머니들 손에 걸러오는 건 겨울에 보기에 이른 녹색의 갈매(가시파래). 갈매는 부채 파자에 뿌려져 있는 파래로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해조이다. 이제는 몸값이 김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깨끗한 갯벌에서만 자라 양식이 어려운 갈매로 어머니들이 직접 담근 쌀밥 매콤한 갈매지, 장좌리 문주 이장님이 직접 키운 전복과 삼겹살 그리고 말린갈매를 함께 먹는 삼합.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삶이 단단해져 더 맛있다는 송어로 만든 송어전복 갈매물회 까지.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갈매를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자.

외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는 뭘까



웰컴 투 시월드(채널A·밤 11시)=양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돈에게 빼돌려 손주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인 며느리가 원망스러운 시월드. 애들 키워 준 건 친정엄마지만 손주 독차지하는 건 시어머니라고 싸우는 두 할머니 사이에서 새우 통 터지는 며느리를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별한 장서 갈등 없이 장모님과 양종달 품 지낸 결혼 12년 차 사위 유지원이 진정으로 바라는 외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는 뭘까. 손자를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믿음이를 맡긴 이정용이 아내와 영화관 데이트 후 믿음이를 보러 간 곳은 어머니 집이 아닌 병원이라고 한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다산의 여왕 김지선이 셋째 아들 성훈이와 동반 출연한다. 머느리 김지선이 말하는 친할머니가 좋은 이유가 공개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6일(음 1월 7일 戊申)

<b>子</b>	36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했을 때 효과가 크다. 48년생 시작만 요란할 뿐이지 별것이 없다. 60년생 영광을 안으리라. 72년생 사소한 장애 요소는 개지켜 말자. 84년생 힘들어 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b>행운의 숫자 : 83, 55</b>	<b>午</b>	42년생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리라. 54년생 공물이어서 더붙어 처리하게 된다. 66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다. 78년생 가변적이나만큼 폭넓게 대처해야겠다. <b>행운의 숫자 : 31, 43</b>
<b>丑</b>	37년생 무의미한 낭비가 있을 수다. 49년생 최선을 다했을 때만 길한 방향으로 선회하겠다. 61년생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국이다. 73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호받지 않는다. 85년생 꼭 참고 있는 것이 좋다. <b>행운의 숫자 : 96, 91</b>	<b>未</b>	43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55년생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절하다. 67년생 폭발적인 양상을 띄게 되리라. 79년생 상대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b>행운의 숫자 : 22, 77</b>
<b>寅</b>	38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종국적인 결과는 같다. 50년생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연히 대처 하자. 62년생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b>행운의 숫자 : 46, 04</b>	<b>申</b>	44년생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하느니라. 56년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예의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줘야 뒤끝이 없다. 80년생 너무 느슨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니라. <b>행운의 숫자 : 37, 23</b>
<b>卯</b>	39년생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느니라. 51년생 이제 헛수고는 그만 하자. 63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75년생 지난날 언행 했던 바가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날이니라. <b>행운의 숫자 : 67, 47</b>	<b>酉</b>	45년생 발인하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유익하다. 57년생 선함을 인식한다면 시정화조 없이 넘어갈 수 있다. 69년생 공익에 이바지한다면 자신의 불운도 함께 해소되리라. 81년생 차별화시키자. <b>행운의 숫자 : 62, 90</b>
<b>辰</b>	40년생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하라. 52년생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정하자. 64년생 도중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76년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b>행운의 숫자 : 76, 84</b>	<b>戌</b>	46년생 상대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을 것이다. 58년생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양상이니라. 70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법이다. 82년생 결과 속이 전혀 달라서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 <b>행운의 숫자 : 16, 38</b>
<b>巳</b>	41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53년생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할 때다. 65년생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리라. 77년생 막상막하의 경쟁자를 만나 진땀을 빼는 형태이다. <b>행운의 숫자 : 85, 09</b>	<b>亥</b>	47년생 애매한 입장에서 취한 행동들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59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다. 71년생 생 성취로 인해 희색이 만연해졌다. 83년생 때를 맞춰 가는 화젯거리가 있다. <b>행운의 숫자 : 78, 63</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